

정치의 시기에 작당모의 하는 법

2024 페미니스트 콩깍지 프로젝트 기록집



목차

편집자의 말...	04.
콩깍지를 함께 한 사람들...	06.
우리의 글...	10.
모임을 하는 법...	37.
(부록) 서로에게 질문하기...	45.
(부록) 모임의 도구들...	46.

편집자의 말

페미니스트 공각지 프로젝트란 무엇인가. 이 책자는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

페미니스트 공각지 프로젝트는 2024 년 4 월에 열리는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응하는 페미니스트 동료들을 모이기 위해 기획한 사업입니다 . 여성혐오가 거세지면서 한국 정치는 ‘페미니스트’ 라는 단어 뿐만 아니라 ‘여성’ 이라는 단어조차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았습니다 . 그렇기에 더더욱 지역에서 , 동네에서 , 서로 다르지만 , 내 마음과 네 마음을 꺼내어 보이며 소통할 수 있는 페미니스트들의 모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

이런 필요성을 함께 느낀 일곱 명이 만나 2 월 15 일부터 4 월 11 일까지 일곱 번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 모임이 진행되는 기간에 페미니스트 정치 특강과 토크쇼도 참여했고 , 3.8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한국여성대회에서 부스도 진행했고 , 여성신문에 총선을 맞이한 각자의 정치 에세이도 작성해보았습니다 .

공각지 프로젝트를 마치니 22 대 국회의원 선거도 끝났습니다 . 우리는 당선인들에 대한 솔직한 평가와 22 대 국회에 대한 기대를 나누었고 , 공각지 프로젝트 자체에 대한 소회도 남겼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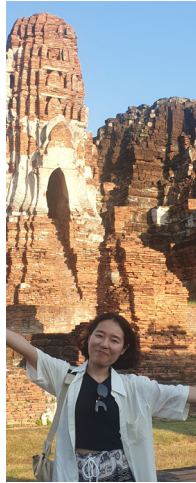
“공각지 프로젝트를 통해 자의반 타의반으로 정치에 관심을 가졌다는 점 . 선거를 이렇게까지 신경 써본 건 인생 처음이었다는 점 . 어떤 주장을 통해 정치를 바꿀까 고민하게 되었다는 점 . 정치 에세이를 쓰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기도 했다는 점 . 서로를 만나 새로운 문장과 단어와 가치를 배웠다는 점 . 페미니즘 주제로 모임에 참여한 것이 처음이었다는 점 . 차이에서 오는 긴장들을 수용하는 즐거운 대화가 이어지는 것이 기뻐했다는 점 . 동료들의 실체를 확인하고 공각지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는 점 . 정치에 기대를 갖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점 . 나의 지향점에 대한 희망이 생기기도 했다는 점 .”

우리는 다른 장소에서도 이런 공각지 모임들이 많이 열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 그래서 우리 모임을 책자 형태로 엮습니다 . 책자에는 우리들이 모인 계기 , 소개 , 모임 중 썼던 글 , 모임 개요 , 아이스브레이킹을 위해 사용했던 도구 등을 담아두었습니다 . 우리 모임의 기록을 참조해서 다른 모임들을 구성해보셔요 . 다른 공각지는 꼭 정치와 관련한 모임이 아니어도 되겠지요 . 여기저기서 공각지들이 많이 생겼단 소식을 전해 들으면 정말 기쁠 거예요 .

공각지를
함께한
사람들



찰라



유랑

성정체성에 대해 다시 고민 중인 사람. 상대방을 완전히 신뢰하기 전까지는 에이섹슈얼과 똑같다는 사실에 새롭게 놀라고 있다. 서로 버팀목이 되어주며 미래를 함께 할 파트너를 찾고 있다.

새로운 곳을 돌아다니고 여행하고 싶어 활동명도 유랑이다. 아직 모르는 것이 많아 더 공부해야겠다고 느끼는 요즘이다.



물음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다니는 여성, 장애인, 대학생, 탈가정 청년이다. 말하지 못하고 묻혀 있던 생각들을 출력하는 게 목표다.



가을

수수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다. 많은 것에 회의적이다. 거대 정치에 개인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래도 모이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콩을 좋아한다.



동은

희진

누군가의 삶을 기록하고 해석하는 일도, 누군가와 힘차게 행진하는 일도 둘 다 너무 중요해서 연구활동가가 되기로 했다. 때로 후라이처럼 차라리 흘러가듯 살고 싶지만, 아주 작은 것에도 진심이어서 피곤하고 풍요로운 하루하루를 산다.

식물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인간이라 햇빛 쬐고 물 마시고 좋은 공기 맡으며 회복합니다. 삶의 빈칸은 책과 음악, 영화로 채웁니다. 사랑하고 꿈꾸는 세상을 씁니다.

정치에 조금 관심이 있다. 중요하다고 배웠고 그 중요성에 비해서 행위자들의 말과 행동은 영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서, 그 간극은 뭘지 궁금해하는 편이었다. 속 불편한 얘기를 함께할 수 있어서 좋았다.

우리는 이걸 보고 모였다

2024 총선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페미니스트 콩깍지 프로젝트 대모집

앞으로 2개월, 총선을 대응하는 우리만의 팟pod, 페미니스트 콩깍지와 함께 하세요!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삭감, 계속되는 정치인들의 여성·소수자 혐오 발언...

성평등, 공공성 실종 정치가 나를 뉴스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나의 삶을 다루는 정치 1도 없다...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까지 앞으로 70여일, 혹시 이런 생각으로 마음속에 혼란함과 우울감을 혼자 쌓아두고 있지는 않나요?

페미니스트 동료들과 콩깍지 팟(pod)을 이루어 어려운 시기를 든든하게 함께 해요!

콩깍지가 각각의 고유한 콩들을 안전망처럼 감싸주듯이 페미니스트 콩깍지 pod는 총선 쟁점 의제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공부하고, 시민참여 이벤트도

기획하며 든든한 거점으로 역할합니다.

선거를 마주하며 혼란함을 느끼더라도 이 시기 무력해지지 않도록 함께 모여 이야기할 페미니스트를 기다립니다.

이런 분들께 추천해요!

‘나만 그런게 아니었어!’ 페미니스트들과 선거 때마다의 답답함, 혼란함을 나누고 싶은 사람

‘일상과 정치의 연결고리를 찾아서’ 투표 이외에도 시민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싶은 이

‘후퇴하는 세상, 혼자서는 바꿀 수 없어’ 우리가 살아갈 다른 세계에 대해 고민하는 페미니스트

2024 총선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 삭감... 계속되는 정치인들이 여성·소수자 혐오 발언... 성평등, 공공성이 실종된 정치가 나를 뉴스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4월10일, 국회의원 선거까지 앞으로 70여일, 혹시 이런 생각으로 마음 속에 혼란함과 우울감을 혼자 쌓아두고 있지는 않나요?

2월15일 (목) 16:00 - 18:00 초모일
2월22일 (목) 16:00 - 18:00 두번째 모임
2월29일 (목) 16:00 - 18:00 세번째 모임
3월7일 (목) 16:00 - 18:00 네번째 모임
3월14일 (목) 16:00 - 18:00 다섯번째 모임
3월21일 (목) 16:00 - 18:00 여섯번째 모임
3월28일 (목) 16:00 - 18:00 일곱번째 모임
4월4일 (목) 16:00 - 18:00 열번째 모임

콩깍지 팟(pod)을 이루어 어려운 시기를 든든하게 함께 해요!

2개월간 콩깍지 팟을 함께 활동!!

콩깍지가 각각의 고유한 콩들을 안전망처럼 감싸주듯이, 페미니스트 콩깍지는 총선 쟁점 의제에 관해 서로 의견을 나누고, 공부하고, 시민참여 이벤트도 기획하며 서로에게 든든한 거점으로 역할합니다!

혼란한 세상, 무력해지지 않도록 함께 모여 이야기 할 페미니스트를 기다립니다.

모집기간: 2월12일 자정까지 | 문의: 02-338-2890, f.culture@isters.or.kr

2024 총선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 삭감... 계속되는 정치인들이 여성·소수자 혐오 발언... 성평등, 공공성이 실종된 정치가 나를 뉴스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4월10일, 국회의원 선거까지 앞으로 70여일, 혹시 이런 생각으로 마음 속에 혼란함과 우울감을 혼자 쌓아두고 있지는 않나요?

2월15일 (목) 16:00 - 18:00 초모일
2월22일 (목) 16:00 - 18:00 두번째 모임
2월29일 (목) 14:00 - 16:30 정치인과 함께하는 페미니스트 정치 특강
3월7일 (목) 16:00 - 18:00 세번째 모임
3월14일 (목) 11:30 - 16:30 3월 여성단체 시민참여부스 운영
3월21일 (목) 16:00 - 18:00 다섯번째 모임
3월28일 (목) 16:00 - 18:00 여섯번째 모임
4월4일 (목) 16:00 - 18:00 열번째 모임

콩깍지 팟(pod)을 이루어 어려운 시기를 든든하게 함께 해요!

2개월간 콩깍지 팟을 함께 활동!!

콩깍지가 각각의 고유한 콩들을 안전망처럼 감싸주듯이, 페미니스트 콩깍지는 총선 쟁점 의제에 관해 서로 의견을 나누고, 공부하고, 시민참여 이벤트도 기획하며 서로에게 든든한 거점으로 역할합니다!

혼란한 세상, 무력해지지 않도록 함께 모여 이야기 할 페미니스트를 기다립니다.

모집기간: 2월12일 자정까지 | 문의: 02-338-2890, f.culture@isters.or.kr

우리들의 글

우리는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바라는 가치, 정책, 정치에 관한 글을 쓰기로 했다. 각자의 삶과 경험 속에서 길어올린 내용들이다. 글은 모두 여성신문 [총선거획-4.10 페미니스트가 꿈꾸는 세상] 코너에 실렸다. 이 책자에 실린 글은 지면의 한계로 줄일 수밖에 없었던 글에 내용을 덧붙이거나, 선거 이후나 신문 게재 이후 변화한 상황을 반영하여 수정한 것이다. 책자에서는 공간지 프로젝트에 참여한 여러 사람들의 고유하고 다양한 목소리와 주장을 있는 그대로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했기에, 교정 교열 외의 편집을 거치지 않았다. 따라서 각자의 글은 한국성폭력상담소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린다.

우리는 생활동반자법을 원한다

Çağla 찰라

LGBTQIA 란 무엇일까? 레즈비언, 게이, 바이, 트랜스젠더, 퀴어 / 퀘스처너리, 인터섹스, 에이섹슈얼을 뜻합니다. 저는 에이섹슈얼에 포함되는 데미섹슈얼입니다. 에이섹슈얼에는 에이섹슈얼, 데미섹슈얼 (Demisexual), 그레이섹슈얼 (Graysexual) 이 포함됩니다. 데미 (Demi) 는 절반을 의미합니다. 50% 가 아니라 흑과 백이 번갈아 가며 존재한다는 뜻이죠. 데미란, 상황에 따라 무성애자일 수도, 유성애자일 수도 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성을 사랑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동성을 사랑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연정을 느끼지 않는 게 당연한 것처럼, 때에 따라 느끼고 느끼지 않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저는 데미섹슈얼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사랑 (연정끌림) 이나 성적 (섹슈얼끌림) 인 호감을 느낄 때, 보통 1 번 조건으로 끌림을 느낍니다. 그리고 2 번 조건을 알게 되면서 더 큰 끌림을 느끼거나 끌림이 반감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데미섹슈얼들은 2 번 조건으로만 끌림을 느낍니다. 1 번 조건은 외적인 부분을 의미합니다. 외모, 목소리, 옷차림 등. 2 번 조건은 내면적인 부분을 의미합니다. 가치관, 성격, 취향, 좋아하는 것, 최근 관심사 등. 저는 사람의 외모만 보고 섹슈얼적 욕망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2 번 조건에 대한 걸 알기 전까지 저는 그 사람에 한해서는 무성애자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2 번 조건을 알게 된다고 해서 무조건 섹슈얼끌림을 느끼게 되지는 않습니다.

또 저는 그레이로맨틱 (Grayromantic) 이기도 합니다. 그레이는 흑과 백이 섞인 것을 의미합니다. 로맨틱을 느끼지만, 유로맨틱 (Alloromantic) 에

비해서는 희미하게 느낍니다. 꼭 로맨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로맨틱한 감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저에게 아주 어려웠습니다. 로맨틱한 감정은 심취와 이상화, 신체적 / 정신적으로 가까워지기를 바라는 마음. 독점하고 싶은 마음. 내 감정에 답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 상대의 행동을 과하게 생각하는 것, 상대를 위해 자기 삶의 일부를 바꾸는 것, 상대가 반대로 자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갈수록 집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감정을 안 느껴봤느냐? 라고 묻는다면 느껴봤지만, 이런 감정들이 나에게 필수불가결한 감정인가? 라고 되묻는다면, 글썄? 라고 대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감정들을 억누르려고 노력하면 쉽게 억눌러질 정도로 희미하게 느껴진다는 점에서 저는 제가 그레이로맨틱이라고 정체화했습니다.

하지만 로맨틱과 섹슈얼이 없어도 그냥 친한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에이스: 무성애로 다시 읽는 관계와 욕망, 로맨스』에서는 이런 감정을 플라토닉 사랑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플라토닉 사랑은 로맨틱 사랑과 약간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겹치는 부분이 아예 없는 건 또 아니라고 합니다. 명확하게 가를 수 없다는 것이죠. 플라토닉한 사랑에서 표현되는 감정은 친구(들)를 경애하거나 헌신하는 마음이라고도 합니다. 유로맨틱 분들은 사랑하는 애인이 있어도, 특별히 더 아끼고 긴밀한 관계를 맺는 친구(들)가 있지 않나요? 이 책에서는 플라토닉사랑, 우리가 아주 친한 친구라고 부르는 관계도 사랑이 아닐까? 라고 의문을 던지는 예시가 나옵니다.

“캐나다 정부는 여든세 살 친구 밀드러드 샌퍼드와 함께 살던 일흔세 살 미국인 여성 낸시 인퍼레라를 추방했다. 두 사람은 몇 년 전 노바스코샤로 이사했고 돈을 모아 14,000 달러짜리 이동 주택을 같이 구입했다. 이들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로 설명되었고 낸시는 치매가 있는 밀드러드를 돌보았다. 브레이크는 이 사건에 관해 이렇게 쓴다. “그런 우정은 장기적인

상호돌봄과 동반자 관계라는 결혼의 주요 목적 한 가지를 수행한다. 그러나 이 관계는 결혼과 유사한 법적 보호를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추방을 막아주는 보호 조치는 낸시와 밀드러드가 아니라 오히려 폭력적인 결혼 관계를 이어오는 커플이 더 많이 받았다. (그래도 7년이 지나 낸시는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했다)”

『에이스: 무성애로 다시 읽는 관계와 욕망, 로맨스』, 224~225 쪽.

이런 관계가 어떻게 사랑이 아닐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것이 로맨틱 없는 사랑의 예시라고 봅니다. 이 관계를 이 책에서는 ‘플라토닉 쿼어 파트너’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무릎을 쳤습니다. 내가 바라던 관계가 바로 이거야! 저는 그다지 로맨틱을 바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저 서로가 서로를 경애하고 헌신하는 관계를 바라왔던 것입니다. 삶에서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보호자 역할을 해 줄 든든한 지지자. 그리고 나도 언제든지 기꺼이 지지자가 될 수 있다고 서로 약속한 관계, 그것을 바랬던 것입니다. 꼭 로맨틱과 섹스가 있어야 할까요? 사실 결혼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농담이 있는 것처럼 사회는 사랑을 이유로 서로에게 강제로 책임을 지우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로맨틱 없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런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방법이 있나, 생각해 보니 생활동반자법이 떠올랐습니다.

생활동반자법이란 특정인과 동거하며 협조하는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을 ‘생활동반자’로 규정하고 배우자에 준하는 대우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입니다. 혼인 관계가 아닌 개인 간의 결합이라도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국에서 생활동반자법을 발의 하자는 이야기가 나온 지는 10년이 넘었습니다. 2014년 진선미 국회의원실에서 준비했지만 발의하지 못했습니다. 반대의 근거는 황당하기에 그지 없습니다. 동성 간 결혼 가능성 우려, 쉽게 동거 종료를 가능하게 하는 만

큼 생활동반자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나 입양된 아동에게 불안정한 양육 환경을 제공하며, 아동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2024년 4월, 드디어 생활동반자법이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에 의해서 발의됩니다. 용혜인 의원은 “생활동반자법은 혼인제도 바깥에 있는 느슨하고 자율적인 관계들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법안 통과는 되지 않았습니다.

언론인 빅키 라슨 Vicki Larson 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미국의 연방법은 기혼 부부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1100 개 이상의 법을 포함해 다른 헌신으로는 얻을 수 없는 특권을 준다. 배우자는 군인 혜택과 사회보장, 장애관련 혜택과 더불어 서로의 의료보험 혜택을 공유한다. 서로 의료 결정을 대신 내려줄 수 있다. 회사는 배우자의 상이라면 아무것도 묻지 않고 경조 휴가를 주지만, 친구에 그치는 사람이 상을 당해 휴가를 요청하면 그렇게 수월하게 승인이 나지 않을 것이다. 생판 남과 결혼해 자기 건강 보험 혜택을 주는 건 가능하지만 양육자에게 보험 혜택을 주는 건 불가능하다. (중략) 이런 약속이 오로지 로맨틱하고 성적인 맥락에서만 이뤄지고 또 법적으로 인정되는 건 타당하지 않다.”

왜 로맨스와 섹스가 있는 이성 간의 결합만 이런 특권을 가질 수 있나요? 그레이로맨틱, 데미섹슈얼인 나도 퀴어플라토닉 파트너를 맺고 생활동반자법을 통해 법적인 보호자의 지위를 서로 나누고 싶습니다. 이상 queer 해보이는 사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걱정 없이 거리를 다니고 이웃과 소통하며 살고 싶어

유랑

“안방으로 와라.”

내일은 처음으로 혼자 기차여행을 가는 날. 샤워를 끝내고 기분 좋게 잠들려는 찰나, 가슴이 철렁해지는 메시지를 받았다. 내일 몰래 집을 떠나려는 것을 들켰나? 엄마가 방 안에 숨겨둔 여행 가방을 봤나? 원래 이러려던 계획은 아니었다. 며칠 전, 성인이 되자마자 가장 하고 싶었던 혼자 여행의 꿈을 이루기 위해 1주일간 ‘내일로’ 기차여행 계획을 최대한 세세하게 짜서 부모님에게 보여드렸다. 그러나 부모님은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다.

“혼자서 위험하게 어딜 가려고? 안돼.”

나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몰래 다녀와서 혼자 가는 여행이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야겠다.’ 고 생각했다. 미리 숙소와 교통편을 다 예약해 두었고 장롱 안에 배낭을 숨겨두고 조금씩 짐을 쌌다. 그리고 여행을 하루 앞둔 전날 밤, 이런 호출을 받은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나의 몰래 여행계획은 들통났고 그날 거의 1시간 넘게 부모님에게 혼이 났다. 성인이 되면 마음대로 어디로든 다닐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날 밤, 울면서 처음으로 실감했다. 외박 투쟁은 그 뒤로도 이어졌다. 밤늦게 친구와 이야기하다 친구의 고민 상담이 시작되어서 위로해주고 싶을 때, 그날따라 알뜰알뜰하고 기분 좋게 술이 취해서 흥이 올랐을 때 집에 들어오라고 불호령을 내리는 엄마와 나 사이에 늘 신경전이 벌어졌다.

그때마다 나는 내가 ‘여자’ 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확인받는 것 같았다. 나는 귀가 시간을 통제하는 부모에게 계속 저항했지만, 동시에 밤길을 걸을 때 주변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핸드폰을 보지 않고 음악을 듣지 않았고 빠른 걸음으로 걸었다.

4년이 지난 2016년, 강남역 노래방의 남녀공용화장실에서 한 여성이 살해당했다. 범인은 남성 몇 명을 지나 보내고 여성을 노려 살해했고, 범행 동기를 “여자들이 나를 무시해서 그랬다.” 고 말했다. 피해자는 또래 여성이었고 노래방은 특히 내가 좋아하는 장소였기에 기분이 이상했다. 착잡한 심정으로 방문한 강남역 10번 출구에는 많은 여성들이 추모하고 있었다. ‘나는 운 좋게 살아남았다.’, ‘이것은 여성혐오 범죄다.’ 라는 내용이 넘실거리는 포스트잇에 나도 한마디를 보탤다. 그런데 사건은 엉뚱하게 “정신이상자” 의 “묻지마 살인 사건” 으로 이름 붙여졌다. 경찰과 정부는 남녀공용화장실을 분리시키겠다, CCTV를 더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심지어 이 사건의 원인을 정신장애인에게 돌리며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여성의 안전을 책임지겠다며 정부가 내놓는 정책은 나를 전혀 안심시키지 못했다. 식당이나 가게에 딸린 작은 화장실에 갈 때마다 신경이 곤두세워졌다. 몸에 이미 새겨진 두려움은 밤길에서 남녀공용 화장실로 확대되었을 뿐이었다. 마치 첫 혼자 여행을 시도할 때 엄마가 내게 말한 것처럼 세상이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위험하게 어딜 가려고? 안돼.”

정부의 대책이 성공했다면, 더 이상 살해당하는 여성은 없었을 것이다. 2023년, 또 한 명의 여성이 살해당했다. 이번에는 밤길도 아니고, 화장실도 아니었다. 출근하는 길 산책로였다. 이번에 정부는 ‘가석방 허용하지 않는 무기징역’ 을 도입해 강력범죄자를 엄벌하겠다고 나섰다. 이전에 발생한 흥기난동 사건 대응과 겹치며 평범한 거리에 장갑차가 등장했다. 정

부는 성폭력 대응을 ‘(물리적) 힘이 없는 약자’ 를 보호하기 위해 ‘힘이 센’ 범죄자를 공권력, 군사력과 같은 ‘더 큰 힘’ 으로 제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상근활동을 하는 성폭력상담소에서 조직한 긴급행동은 “성평등해야 안전하다.” 라는 구호를 내세웠다. 새겨진 두려움이 공원으로 확대되기 전에 여성들이 모여 산길을 밟으며 추모했다. 구호를 외치며 추모하는 행렬은 신림역까지 이어졌다. CCTV 설치나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은 물론 필요하지만, 치안 강화나 엄벌주의만이 젠더폭력의 해결책인 것처럼 이야기되는 것은 우려스럽다. 여성이 자꾸 희생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성차별적인 사회가 여성을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는 여성이 희생되는 젠더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미봉책에 불과한 정책을 내놓을 뿐, 성범죄 무고죄 처벌을 강화하겠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언설로 오히려 성차별을 조장했다. 공원에서 외쳤던 구호처럼 성차별을 해결하지 않으면, 젠더폭력은 해결되지 않는다.

다시 내가 갓 성인이 된 시절로 돌아가서 몰래 여행을 들킨 날, 울면서 내일로 티켓 예약을 취소하려고 했으나 취소가 되지 않았다. 다음 날, 나는 타협해서 당일치기로 처음으로 혼자 기차를 타고 단양을 다녀왔고 이때 느낀 설렘과 자유로움이 계속 다른 여행을 도전하게 했다. 새로운 곳을 더 많이 걷고 다녀보고 싶어서 활동명도 ‘유랑’ 이라고 지었다. 우리에게는 원하는 시간과 공간에 있을 자유가 있다. 범죄자를 분리하고 CCTV를 설치해 “안전한” 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여성의 공간을 제한하는 정책일 수밖에 없다. 걱정 없이 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여성차별을 철폐하는 모든 공약이 젠더폭력 대응 정책에 포함되기를 바란다.

나를 부정하는 억압과 타협하는 대신

저항하려고 해

물음표

나는 감각이 예민해서 브래지어를 차고 버티지 못한다. 누군가가 갈비뼈를 끈으로 묶고 숨통을 막아버리는 느낌이 든다. 억지로 차고 버티면 고통스럽다 못해 감각이 멎해진다. 다른 일에는 아예 손을 대지 못한다. 경험상으로는 6시간 정도 버티면 고통이 감각의 역치를 넘어가서인지 감각이 무뎈진다. 고통이 좀 덜해졌나 싶으면 이미 탈진해 있다. 브래지어를 찢 때 마다 이 고통을 반복해서 겪어야 했다. 적응할 수 있다고 설득당해 본 기억은 있지만 실제로 적응한 기억은 없다.

브라 때문에 버티기 힘들다고 주변에 말해봐도 돌아오는 건 비장애인에게 맞춰진 충고뿐이었다. 자주 차고 다녀서 적응하면 편해진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브라를 차고 자보기도 했고 억지로 버티려고도 해봤지만, 몇 년이 지나도 편해지지 않았다. 편한 브라를 찾으면 된다는 말도 들어봤다. 그런데 아무리 종류를 바꿔봐도 등 뒤에 무언가 닿는 느낌만 들면 끔찍한 감각이 되살아났다. 나를 키운 여성 양육자는 내가 황금 가슴이라도 가진 것처럼 유난을 떤다고 했다.

유난이 아니었다. 성인이 되고 나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나는 자폐인이다. 공식적인 진단을 받을 기회도 없었고, 장애인 등록은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었다. 하지만 내 삶은 자폐인 여성의 삶이다. 자폐인인 줄 몰랐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학교에서 경험한 장애차별과 성차별

보수적인 지역에서 여자중학교를 나왔다. 알지도 못했던 장애 때문에 학교폭력에 시달렸던 초등학교 때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지만, 성차별적인 학칙과 나의 자폐 특성이 맞물리면서 당시에는 설명할 말조차 찾을 수 없던 피해를 봤다. 학교는 학생들의 속옷까지 통제했다. 눈에 띄지 않는 색깔의 브라에 끈 자국을 가릴 단정한 흰색 속옷을 요구했다. 어떤 학생은 무늬가 있는 브라를 차고 등교했다는 이유로 벌점을 받았다. 여자는 아이를 낳지 않으면 병에 걸리는 몸이라고 대놓고 말하던 선생님도 있었다. 2010년대에 일어난 일이다.

어렸을 때는 브라를 차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교복을 입어야 하는 중학교에서는 확실히 티가 났다. 특히 하복. 아까 언급했던 선생님이 내가 브라를 차지 않는다는 것을 눈치채고는 나를 따로 불러서 욕박질렀다. 뭐라고 말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말을 해도 내가 안 듣는다면서 '인성생활부'에 넘기겠다는 취지였다. 실제로 인성생활부장 선생님과 면담을 하게 되었다. 학교에서 배려할 만큼 배려해 줬는데 내가 기본을 안 지킨다고 따듯하게 들리는 목소리로 조곤조곤 말씀하시더라. 나중에는 아예 담임 선생님이 다른 학생을 시켜서 내가 브라를 차고 다니는지 감시하게 만들었다. 여자인 내가 브라를 차지 않고 유두를 드러내는 행동은 '시각적 성추행'이라는 소리도 몇 번 들었다.

여기서 '인성생활부'와 '시각적 성추행'이라는 말에 주목해 보자. 인성생활부는 잘못을 저지른 학생들을 징계하는 부서다. 성추행은 범죄다. 나는 몸의 특성상 브라를 차고 버틸 수 없는데, 학교는 내가 브라를 차고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 절차를 밟았다. 나 자신을 드러냈다는 이유로 범죄자나 다름없는 취급을 당했다. 유두가 교복 밖으로 드러나면 다른 학생들이 나를 피했다. 교복을 입고 있기 힘들어서 체육복 차림으로 최대한

오래 버티려고 했는데, 교복을 제대로 안 입고 다닌다며 교실에서 큰 소리로 모욕을 주는 선생님들이 있었다. 그때는 내가 장애인인 줄도 몰랐고, 장애의 특성 때문에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더더욱 알 길이 없었다. 내가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 왜 당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경멸과 혐오를 받아내야 했다.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들 중에서 유일하게 내 장점을 먼저 봐주셨던 6학년 담임 선생님께 이런 일이 생겼다고 털어놓았다. 끔찍한 대답이 나왔다. “지금 네가 얼마나 섹시한지 알아?”

이게 한국 나이로 14 살짜리 청소년에게 할 말인가? 중학교 때보다 더 원색적인 장애차별이 난무하던 초등학교에서 거의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었던 사람과의 연결고리가 이때 끊어졌다.

나도 모르게 억압에 순응했던 기억

그 뒤로도 몇 년간 고생하다가 괴물 취급당하지 않을 방법을 간신히 찾아냈다. 등에 달라붙는 고무줄이 없는 큰 캐미솔을 산 다음 브라 컵을 바느질해서 나만의 속옷을 조립(?) 했다. 그 위에 큰 티셔츠를 입고 다녔다. 한동안은 그 방법으로 효과를 봤다. 그런데 < 합정과 망원 사이 > 라는 책을 읽다가 생각이 바뀌었다. 유이영 작가는 브라를 처음 차던 날의 모욕감과 모멸감을 기억한다고 말했다. 브라 때문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웠던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계기였다. 작가도 신경다양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해봤지만 확인해 볼 길은 없었다. 그날 오후에 캐미솔을 입지 않고 밖에 나가봤다. 성차별적이고 장애차별적인 압박에 굴복하기 싫어서 처음으로 용기를 냈다.

부정하고 싶은 결과였지만 20 살의 나는 유두를 가리지 않으면 불안해서 밖에 나갈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보복당할 것 같다는 생각을 견

딜 수 없어서 다시 방으로 돌아가 내가 만든 캐미솔을 꺼내입었다. 누구한테 어떤 보복을 당할지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는 없었지만 어쨌든 당장 유두를 가리지 않으면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았다. 캐미솔을 다시 입으면서 절망했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하다. 브라 컵이 달린 캐미솔은 차별에 굴복하는 고통을 줄이는 수단일 뿐이다. 신체적인 고통은 덜어줄지 몰라도 ‘여자는 예의상 유두를 가려야 한다’ 는 압박에는 흠집 하나 내지 못한다.

나중에 해외에서 지낼 기회를 잡아서 아무 거리낌 없이 유두를 드러내는 사람들을 여러 명 보고 나서야 유두를 가려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 계속 있었으면 절대 벗어날 수 없었을 압박이다. 그런데 귀국하자마자 또 유두를 가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차별을 피하기 위해 숨겨야 했던 건 유두뿐만이 아니다. 신경전형인이 아니면 사람 취급 받기도 힘든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내 입을 막는 가면을 쓰고 버티는 법을 억지로 배웠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어도 보복이 두려워 항의하려다 망설이고, 면접을 보러 가면 탈락하기 싫어서 신경전형인 흉내를 낼 때도 있다. 미등록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차별을 당해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어 더 몸을 사려야 한다.

장애차별이 두려워서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고 싶지 않다. 페미니스트를 겨냥한 공격이 두려워서 내 경험과 생각을 숨기고 싶지 않다. 차별에 익숙해져서 억압을 재생산하는 어른이 되고 싶지 않다. 부당한 일을 참지 못하는 성격 때문에 끊임없이 배척당했고, 앞으로도 배척당할 일이 많겠지만 굴하지 않고 목소리를 낼 힘을 꾸준히 기를 것이다. 이번 봄, 여름, 가을에는 브라를 착용하지 않는 것은 물론 대체품도 사용하지 않을 생각이다. 유두가 보인다는 이유로 신변의 위협을 당해도 최소한의 대체품만 사용할 것이고, 위협이 사라지면 바로 대체품 사용을 중단할 것이다.

나를 부정하는 차별에 저항하겠다는 약속

나는 어떤 공간에서도 온전히 환영받아 본 적 없는 몸이다. 차별과 혐오와 학대가 내 삶의 기본값이었다. 끔찍한 말이지만 한국에서 태어나 자폐인 여성으로 살아가면서 폭력적인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당장 뽀족한 해결책이 없을 때 혼자 24시간 365일 현실적인 불이익을 받아내며 싸울 수는 없다.

대신 나 자신과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겠다.

폭력적인 상황에 적응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체념하는 대신 내 상황을 최대한 정확하게 파악하고 빠져나갈 방법을 찾는 데 집중하겠다. 살아남기 위해 타협해야 할 때도 있겠지만 내가 처한 상황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저항하겠다. 뛸 수 없으면 걸을 것이고 걸을 수 없으면 기어갈 것이다. 만약 굴욕적인 방식으로 타협해야 할 일이 또 생긴다면 살아남기 위해 한 말과 행동을 가지고 나 자신을 채찍질하지 않겠다. 반면 타협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혔다가 끔찍한 결과가 나와도 도전해 볼 만 한 일이라면 다시 도전할 용기를 내겠다. 대신 무엇이 나를 실패하게 만들었는지 공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일부터 시작할 것이다. 내가 겪은 일을 기록으로 남기고 주기적으로 돌아볼 것이다. 비슷한 일을 겪는 사람을 본다면 최선을 다해 돕겠다. 내가 겪었고 겪고 있고 앞으로도 겪을 폭력이 내 삶의 기본값이 아니어도 되는 환경을 상상하고 만들어가기 위해 배우고 공부하고 도전하고 듣고 쓰고 말할 것이다.

20살 때 시작한 고민이 이렇게 처음 글로 나온다. 아직까지는 ‘최선을 다하겠다.’ 같은 추상적인 내용이 많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배우고 경험할 내용으로 지금 쓰지 못한 부분들을 채울 것이다.

여담

콩깍지 모임을 통해 여성신문에 이 글의 토대가 된 칼럼을 게재할 기회를 얻었다. 그런데 내 칼럼이 인터넷이 올라가던 날 여성신문에서 임의로 장애차별적인 제목을 붙여 내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내가 제출한 제목은 눈에 잘 띄지 않는 부제목으로 빠지고, “‘정상’에서 벗어난 나,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까”라는 제목이 붙어있었다. 나는 여성 자폐인이 겪는 교차적인 차별을 알리고, 이런 일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사회 분위기에 저항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드러내기 어려웠던 이야기를 칼럼으로 써냈다. 그런데 여성신문은 나를 비장애인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처럼 묘사한 제목을 붙여서 기사를 내보냈다. 장애인이라면 ‘정상인’들이 자신을 받아주기를 바라면서 비장애인들을 비굴하게 올려다보아야 하는가?

칼럼 제의를 받았을 때는 처음으로 우리나라 신문에 칼럼을 써볼 기회가 생겨서 기뻐지만, 이런 일을 겪으면서 여성신문은 여성 장애인의 이야기를 다룰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약자들끼리 뭉친 집단에서도 조금이라도 덜 차별당하는 쪽이 더 차별당하는 쪽을 배제하고 괴롭히는 일을 많이 겪어봤고 다른 사람이 당한 사례도 적지 않게 알고 있다. 당하고 목격할 때마다 희망이 조금씩 사라진다. 여성신문이 내 이야기를 존중했다면 끝까지 뜻깊은 기회로 기억하고 여성신문에게 감사했겠지만, 나를 조롱하는 듯한 제목을 보고 감사한 마음이 달아났다.

차별받는 사람이 목표에 다가가려면 ‘선택적 가시발길’을 지나가야 한다. ‘선택적 가시발길’은 주류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장애물이 없는 평탄한 길처럼 보인다. 그런데 주류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지나가려고 하면 가시를 내밀어서 그 사람이 나가떨어질 때까지 찢러댄다. 우여곡절 끝에 목표를 이뤄도 몸도 마음도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괴롭혀서 노력의 결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만든다. 지금까지 이게 당연한 줄 알고 살다 최근에서야

당연하지 않다고 알게 되었다 . 여성신문은 장애가 있는 나에게 선택적 기사를 내밀었다 . 왜 나는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 모욕을 견뎌야 할까 . 이래서는 안 된다 .

개발 멈춰, 원전 멈춰, 파괴 멈춰

수수

지구에 머무는 하나의 생명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 . ‘지구야 미안해’ 라는 슬로건의 가벼움이 싫지만 , 지구와 동료 생명들에게 깊이 미안한 것은 사실이다 . 인류는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파괴를 저질렀다 .

나는 도시에서 태어나 도시에서만 살았다 . 그래도 항상 흙을 파고 놀았고 , 들꽃의 이름을 외우는 걸 좋아했고 , 바람이 불면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생각했다 . 외증조할머니는 세상 만물 모든 것에 신이 담겨 있다고 말해주었다 . 의자를 놓을 때도 의자 신과 장판 신이 아플까 봐 조심했다 . 돌이켜보면 매우 영적인 어린이였던 것 같다 . 환경오염에 관한 기사를 읽을 때면 괴로웠다 . 너무 괴로워서 몸이 아플 지경이었다 . 우리가 다 죽는다는데 ! 나는 점차 환경과 관련된 아무런 기사도 읽지 않게 되었다 . 그리고 서서히 영적인 어린이에서 벗어나 이성을 믿기 시작했다 . 밤도 무섭지 않았고 , 멸망도 덜 무서워졌다 . 어떻게든 되겠지 .

개발과 파괴 현장과 다시 마주한 것은 스무 살이 넘어서였다 . 재개발 현장에 용역 깡패가 들어와서 모든 집기를 깨부수고 있다고 했다 . 재개발이 뭐가 문제인지 , 경찰이 있는데 어떻게 도시 한복판에서 용역 깡패가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건지 잘 이해되지 않았다 . 그렇지만 친구들이 오라고 해서 갔다 . 난리가 났다고 했다 . 가보니 정말 난리가 나 있었다 . 용역이 밀쳐서 다친 나는 도망가듯이 자리를 빠져나왔다 . 그 가게는 정말 멀쩡했는데 . 왜 가게 주인도 , 손님들도 동의하지 않았는데 건물을 부순다는 걸까 ? 재개발은 누구를 위해 하는 거였을까 ?

또 다른 친구들은 제주 강정마을에 가 있었다. 해군기지 건설 때문에 구름비 바위가 부서질 위기라고 했다. 또 어떤 친구들은 설악산에 가 있었다.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짓는다고 했다. 이미 한 번 환경부가 부동의 결정을 내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케이블카 사업 승인을 공약하며 사업이 다시 추진되었다. 속초시는 또 영랑호를 개발하기 위해 호수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다리와 수면 데크길을 만든다고 했다. 평창에 간 친구들도 있었다.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너무 많은 산을 깎았기 때문에 올림픽으로 인한 폐해를 계속 관찰하고 알려야 한다고 했다. 나는 친구들의 모든 행동에 동의하였지만, 마음 한 켠으로는 ‘바위에 그렇게 많은 의미 부여를 해도 되는 걸까?’, ‘산을 신격화하는 건 아닐까?’, ‘호수가 늘 그대로 있어야만 하는 걸까?’ 의심했다.

그런데 친구들을 따라 현장에 갔더니 그 모든 말들이 이해되었다. 바위와 산과 호수는 충분히 크고 아름다웠다. 그리고 여러 힘의 작용을 통해 형성되어 있었다. 그런데 인간의 힘의 지분이 너무 컸다. 이쯤 되었으면 그대로 뒤도 될 텐데.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굳이 파괴할 이유가 하나도 없을 텐데. 그 지역에 오래 산 활동가들과 주민들은 개발이란 이름의 파괴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세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개발을 해서 이윤이 생기는 것도 아니었다. 평창올림픽 이후 강원도에 투기 자본이 몰렸으나, 그 돈이 지역 사회로 흐르는 것은 아니었다. 여러 센터는 몇백억의 예산을 투입해 지어지기만 했으나 결국 수익이 나지 않아 민간 매각에서도 제외되었다. 개발이 곧 파괴로 이어지는 것도 문제이지만, 개발하면 발생할 거라고 믿어지는 이윤이 발생하지 않을뿐더러, 공정하게 배분되지도 않는다는 것도 문제이다.

더 빠르고 편리한 것, 더 많은 생산을 추구하는 것은 개발이고 좋은 것이라고 배웠다. 개발과 파괴가 한 곳 차이일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 기후위기와 같이 결국 파괴가 인류뿐만 아니라 모든 생태의

목까지 조르고 있을 때는 마냥 개발만을 선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인류가 마냥 자연은 대상일 뿐이고 무한하니 마음껏 개발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을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식민지 건설을 목표로 하던 제국들은 파괴를 외주화했다. 남의 땅을 파내고, 강을 마르게 하고, 오염원은 옮겨두었다. ‘내게만 영향을 주지 않으면 괜찮을 거야’ 라고. 그리고 이런 영향은 더욱 빈곤한 자들에게, 권리를 박탈당한 존재에게, 목소리가 없는 생명들에게 가중된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도 마찬가지다.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것이 일본에 있다고 괜찮은 것은 아니다. 국경과 국가는 사람이 임의로 만든 개념이고, 땅과 물과 바람과 공기는 자유롭게 경계를 넘나든다. 방사능도 그렇다. 원전이 만들어내는 핵폐기물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모두를 위해서 개발과 원전과 파괴를 멈추라고 주장해야 한다.

정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토목공사는 발전의 상징이지만 실제로 거대한 재정 손실을 만들어낸다. 그럼에도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정부는 계속 토건 개발에 힘쓴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에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나중에 하면 안 되는 것은 나중에 미루면서 그대로 있어도 되는 것은 부수고 새로 짓는 것이다.

기후 우울증이라는 단어가 생겼다고 한다.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환경과 관련된 기사를 더 이상 보지 않게 된 과거의 내가 떠오른다. 우울하고 힘들 때 필요한 건 함께 할 친구와 동료들이 아닐까? 그리고 보면 나도 친구들을 따라 서울의 재개발 투쟁 현장과 제주 강정마을과 강원도 속초와 평창에 갔다. 너무 절망하지도 너무 아프지도 않고 같이 지켜보자. 그러기 위해 친구들을 모으자. 우리들의 공각지를 만들자.

돈 안 되는 것들이 지지받는 세상, 어린 것들이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

가을

“근데 ... 돈은 어떻게 벌려고요?”

대학원에서 같이 수업을 듣던 분과 점심식사를 하다가 시민단체 활동가로 지내고 싶다는 내 말에 돌아온 대답이었다. 대학원 과정 내내 나를 쫓아 다닌 물음은 앞으로 연구자로 살 것인지, 활동가로 살 것 인지였다. 학부에서 총학생회를 비롯한 활동에 열정을 쏟았을 땐 이론 없는 실천이 위험하다 느꼈는데, 막상 대학원에 들어와 보니 내가 실천 없이 연구만 할 수 없는 사람이란 걸 알게 됐다. 한국성폭력상담소과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WeTee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며 현장에서 대화하고 연대하는 일들이 얼마나 심장 뛰고 값진 일인지 여실히 느꼈다. 여전히 연구도 나에게 중요하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나의 방식이 꼭 엉덩이 붙이고 앉아 하는 공부만은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안다. 그래서 지금은 스스로를 ‘연구활동가’로 이름붙이며 연구와 실천을 병행하며 지내고 있다.

그런데 어딜 가든 이런 나를 의아해하는 시선들이 있다. ‘연구 실적 내기도 바쁘는데, 왜 굳이 활동을 하려고 해?’, ‘젊은 나이에 일찍이 엘리트 코스 밟으면 성공할 수 있어’, ‘인문사회대학원 나와서 어떻게 돈 벌지를 생각해야지.’ 연구만큼 실천도 중요하다고, 그래서 느리더라도 나만의 길을 가겠다고 결심한 순간부터 나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시선들이다. 이런 시선들이 단지 나의 피해의식만은 아닐 것이다. 우리는 돈 안 되는 것들이

지지받지 못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이든 빠르고 효율적으로 성공적인 ‘갓생’을 사는 것이 칭송받는 세상에서 실적 경쟁을 미뤄두고 돈 안 되는 사회운동을 하며 천천히 가겠다니. 이런 세상에서 내가 지지받지 못하는 건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다. 시민단체들의 회계 투명성을 명목으로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지금 시대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돈 안 되는 사회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누군가에게 돈은 어떻게 벌거나 는 질문을 듣는다면,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의 탓이라고만 할 수 없다. 생산적인 것, 돈 되는 것만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우리 사회의 구조와 문화 탓일 것이다. 목숨 걸고 달려야 하는 ‘빠른배송’, ‘새벽배송’이 국제적 자랑이 된 나라, 돌봄노동이나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노동자는 다른 노동보다 하찮은 취급을 받는 게 당연하다는 사회, 무엇이든 안전보다는 빠른 게 장땡인 구조, 돈 없이는 돈 안 되는 것들을 꿈꿀 수 없는 세상이라 그럴 것이다.

동시에, 이렇게 생산적이지 않은 것들을 쓸모없다 여기는 세상에서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이 사회가 규정한 시기 이전에 돈벌이를 할 수 없는, 그래서 가치 없는 사람들로 여겨진다. 어린 사람들을 ‘미래세대’라고 칭하는 것이 ‘지금은 쓸모없고 나중에 쓸모 있어질 사람들’이라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이유다. 우리가 어릴 때 듣던 ‘어른이 되면’이라는 말은 때론 우리를 꿈꾸게 하기도 했지만 나의 권리와 행복들을 포기하게 만들기도 하지 않았던가.

최근 내가 활동하는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WeTee에서는 < 학교에서 활동가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라는 주제로 소모임을 가졌다. 우리는 공통으로 청소년이 어리다는 이유로 그들의 말과 행동이 미성숙한 것으로 여겨지고 무시된다는 것에 크게 공감했다. 예를 들어, 학교의 가장 중요한

일들은 학생들을 빼고 논의된다는 것, 언제나 교사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운신할 수 있다는 것, 나의 목소리가 어른들에겐 하찮게 여겨지는 것과 같은 일들이다. 2018년 이후로 활발해진 ‘스쿨미투’ 물결 속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학교로부터 들어야 했던 말은 “너희가 아직 어려서 그래” 였다. 자신의 성적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고민하고 정체화하는 청소년기의 성소수자들이 지겹게 듣게 되는 말 역시 “네가 아직 어려서 그래.” 이다. 최근 일 년 사이 서울시와 충남에서 일어난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 역시 나이 어린 사람들을 무시하는 문화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지금의 어른들은 학생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마저 없애려 하고 있다.

나 역시 청소년이었을 때, 그리고 20대 여성으로 사는 지금까지도 단지 어리기 때문에 감내해야 했던 부당함을 기억한다. 억울한 상황에서 아무리 항의해도 무시당하다가 어른이 나타날 때야 조용해지던 상황들, 아직 어려서 결혼할 생각이 없는 거라는 말들, ‘어린 애가 기특하다’, ‘은근히 할 말 다 한다’, ‘당돌하다’ 는 미묘한 나이 차별적 시선들. 돌이켜보면 나는 언제 어디서나 나를 어리게 보진 않을까 몸을 곳곳이 세워야 했다.

그때의 내가 원했던 건 나를 기특하고 당돌한 미래세대로 봐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동등한 주체와 의지를 가진 ‘현재세대’로 인정하는 사회였다. 그런 사회였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평등한 대화를 나누고, 나의 당연한 권리들을 존중받고, 나의 행복을 나중으로 미루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쓸모없어 보이지만 소중한 것들을 들여다보고, 어리지만 가치 있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세심하고 따뜻한 연결의 힘이다.

비인간동물과 인간동물의 존엄한 삶을 위해

희진

“우리는 개, 돼지가 아닙니다.”

국정농단 시위, 스포츠계 미투 운동에 나선 이들은 외친다. 지위와 권력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모양은 ‘개, 돼지’ 라고, 우리는 그런 ‘개, 돼지’가 아니라고. 인간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동물화에 맞서면서 자신들이 인간임을 주장해야 하는 절박한 욕구가 있다. 실제로 그런 외침으로 인간다움에 한 발짝 가까운 사회를 이뤄냈다. 나는 여기에 더해 ‘개, 돼지’의 자리에 남겨진 동물에 대해 함께 성찰해 볼 것을 권한다.

일석이조. 하나의 돌로 두 마리 새를 잡는다는 사자성어다. 적은 힘으로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뜻으로, ‘가성비가 좋다’ 와 같이 일상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이다. 3월 3일은 삼삼데이이다. ‘3’ 월 ‘3’ 일엔 ‘삼’ 겹살 먹는 날이라는 슬로건으로, 대형 온오프라인 쇼핑몰은 돼지고기를 파격적인 할인가에 판매한다. 동물권행동 카라에 의하면 2003년 구제역과 살처분으로 경제적 손해를 본 축협에서 돼지고기 소비를 촉진하고자 이 ‘기념일’을 만들었다. 3월 3일은 세계야생동물의 날이기도 하다. 삼삼데이라는 전국적인 먹거리 이벤트에 동식물의 삶은 묻히고 지워진다. 언어는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다. 일상적으로 쓰는 사자성어와 기념일의 뒤편에 동물이 인간에게 어떤 존재인지,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할 지점이다.

인간의 언어가 간접적이고 알게 모르게 동물을 차별한다면 직접적으로

착취하는 곳이 있다. 바로 축산업이다. 동물을 현시대처럼 거대한 규모로 죽이게 된 것은 한 세기도 지나지 않았다. 인류 역사상 구석기 시대에는 수렵·채집하고 동물을 사냥해 식사를 해결했다. 그러다 한곳에 정착해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일부 동물을 가축으로 길들이기 시작했다. 인구가 늘고, 도시가 생기면서 더 많은 식량이 필요했다. 한국의 경우 급격히 경제 성장한 1960년대부터 축산 수요가 크게 늘었고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했다. 케이지에 갇히는 동물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그렇게 공장식 축산이 시작됐다.

동물은 살아있다. 숨을 쉬고, 냄새를 맡고, 맛을 느끼고, 발로 걸어 이동하고, 아프면 도망치고 싶고, 무서우면 덜덜 떠는 생명이다. 공장식 축산은 동물을 마트에 진열된 물건으로 취급한다. 오직 대량 생산만이 목적이다. 더 빨리, 더 많이 만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태어나 자마자 엄마와 분리되어 울어도, 마취 없이 부리와 꼬리가 잘리고 거세되어 피가 나도 그 고통을 오롯이 겪어야 한다. 병에 걸려도 치료해 주지 않아 방치된 채 죽는다. 약물과 항생제로 버티는 다른 동물들은 동료의 사체와 분변에 노출되어 바이러스에 취약해진다. 비위생적인 환경 때문에 조류독감이나 구제역에 걸려도 모두 살처분 당한다. 그중 몇 명만 감염되어도 인수공통감염병 예방과 방역을 이유로 남김없이 죽는다.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사람 손에 태어나고 사람 손에 죽는다.

동물은 수천 년 동안 인간의 입맛에 맞게 품종개량 되었다. 고기로 소비되는 축사동물뿐만 아니라 ‘애완동물’ 또한 사람에게 조작되었다. 동물을 기르는 목적이 사냥, 경비, 목축에서 “애완” (사랑하며 가까이 두고 귀여워하는 것)으로 바뀌며 사람들은 ‘순종견’, ‘품종묘’의 외모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동물에게 예쁜 얼굴을 만들만한 기형 유전자가 인간에게 발견되면 가능한 최대한 동종교배하여 그 특성을 부각한다. 동물의 외형은 단지

장식 (cosmetic) 의 기능만 있을 뿐, 동물 당사자에게는 슬개골 탈구, 피부염, 고관절 이형성증, 난청 등 수많은 만성질환을 남기는 장애이자 아픔이다.

동물을 생산성과 외모에 따라 선별하는 시스템은 ‘동물 같은 인간’도 시험대 위에 올려놨다. 흑인, 이주민, 유대인, 장애인, 노인, 질병을 가진 자는 살아도 되는 삶에서 배제되었다. 우등한 사람이 열등한 사람을 지배할 수 있다는 우생학의 논리는 착취와 폭력을 합리적인 것이라 믿게 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과 자연도 짓밟힐 근거가 되었다.

하지만 한 존재가 한 존재를 마음대로 다룰 수는 없다. 고유의 삶은 존엄해야 한다. 삶의 선상에서 기쁨과 슬픔을 누리고, 자유롭게 이동하고, 평안히 숨 쉴 수 있어야 한다. 지배와 착취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해 모두의 한 발짝이 필요한 시대다. 당신에게 손 내밀고 싶다.

다양한 목소리가 존중받는 정치를 위해

동은

정치란 무엇일까? 나에게서는 함께 살기 위해 시간과 마음을 내는 것이다.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 공동주거 경험에서 나온 문장이었다. 원가족과 사는 집에서 나오기 싫지만, 돈은 없었던 나에게 공동주거협동조합은 거의 유일한 선택지였다. 월세도 시세에 비해 저렴하고, 전세자금이라는 목돈 없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었다. 외로움도 걱정이었는데 3~5 인의 내 또래 사람들과 같이 지낼 수 있다는 것도 든든했다. 그러나 곧 함께 살기는 각자의 처지가 언제든지 갈등 상황으로 변질 수 있고, 그래서 협의와 조정이 상시로 필요한 고된 작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함께 무엇을 먹을 것인가? 공동생활비를 걷어 식재료를 살 때는, 동물복지 계란을 살 것인지, 적어도 공동 식자재는 비동물성 재료로만 채울 것인지 몇 번이고 이야기가 이어졌다. 왜 필요하고 무엇이 부담스러운지 서로가 설득되어야 했고, 그래서 합의점을 찾아야 했다. 함께 살기의 여러 쟁점 가운데에서도 가사노동은 갈등의 핵이었다. 청결 수준이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누가 가사노동의 압박을 더 많이 받는지, 누가 어지러운 거실을 못 본 척하고 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치열하게 다투었다. 가사노동에 '더 익숙한 사람' 이 '자연스럽게'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과 바깥일이 더 중요하고 집안일은 사소하다는 우리 안의 가치 평가가 만들어내는 문제라는 공동의 이해에 도달하기까지는 또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조합 차원에서 다

룰 것인가를 두고도 의견이 갈렸다. 어떤 이는 조합비를 더 건어서 그 돈으로 민간 청소 업체에 일부를 맡기자고 했다. 다들 바쁜 우리가 싸우지 않고 각자도 여유시간을 많이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다. 어떤 이는 가사노동에 대한 우리 안의 인식 자체를 바꿔야 하고, 각자가 고르게 훈련될 수 있도록 관계 안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빠른 답은 없었고, 지지부진하기도 했지만,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할 것인가 머리를 맞대는 순간들 속에서 우리 삶의 문제를 우리가 다루고 있다는 건강한 자신감을 얻기도 했었다. 정치가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서 자신이 속한 사회의 구속력 있는 공적 결정에 도달하는 과정이라면 정치의 필요성이 이해되는 것도 같았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 정치에서는 함께 사는 방법을 까먹었거나 애초에 그럴 생각이 없는 이들이 '정치' 라는 이름표를 달고 말과 행위를 독점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보이는 여의도 정치의 문법은 누가 배지를 달 것인가에 관한 굉장히 협소한 의미로서만 존재하고 있다. 내 삶에 당면한 문제에 대한 인식도, 제안도 찾기가 어렵고 '비시민' 으로 함부로 낙인찍으며 적극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비혼으로, 스스로를 먹여 살리기 위해 노동하면서, 혈연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어떻게 연결되면서 살 것인가가 고민인 나에게 이번 총선 과정에서 정치는 등을 '탁' 치며 "꿈 깨" 라고 말하는 것 같다. 가족제도에 들어가고, 아이를 낳기만 한다면 혼수비용도 주고, 집도 주고, 육아휴직도 많이 주겠다는 공약이 쏟아졌는데 이것이 실효성 있는가와는 별개로 나에게 가족제도 밖의 삶은 보장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름없이 들렸다. 게다가 정치 공간에서 '20 대 여성' 이라는 나의 처지는 존재하지 않는 성차별을 주장하며, 누군가의 몫을 빼앗아 간다는 언설들로 왜곡되기 일쑤이다. 표를 얻어내기 위해 혐오의 대상으로 활용되고, 한편으로는 '페미니즘 리부트' 시기 정치세력으로서 충분히 주목할 만한 행보를 보여왔음에도 적극적인 '젠더 삭제' 정치 기획 가운데 정치적 효능감을 얻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

지난 2 개월 페미니스트 콩깍지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어이없는 시민 대우에 성난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가 원하는 정치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되었다 . 서로 다른 조건과 상황 속에서 어떻게 공동의 것을 만들고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을지 고민하는 정치 , 한쪽을 배제하면 한쪽이 승리하는 선수들의 경쟁이 아니라 동료들이 하는 팀플레이로서의 정치 , ‘민주주의의 완성은 성평등’ 이라는 말이 진지하게 탐색 되는 정치가 우리 곁에 당도했으면 한다 .

모임을 하는 법

우리는 우리 모임이 꽤 마음에 들었다. 그리고 우리처럼 각자의 콩깍지 모임을 구축하고 싶은 사람들이 분명 지구 여기저기에 많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모임이 어떻게 꾸려졌는지 상세하게 적어두려고 한다. 처음 만난 사람들이 그냥 재밌게 이야기를 이어가기도 하지만, 아무 도구도 가이드도 없으면 좀 어색할 가능성이 높다. 페미니스트 콩깍지 프로젝트에서 사용했던 질문들, 모임의 도구들, 우리가 진행했던 ‘콩 싹 튀우기(과제)’들...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다.

첫번째 모임 : 소개들
2024.02.15 (목)

첫 소개  첫번째 모임 후기
읽으러 가기

한국성폭력상담소 소개
이 공간의 약속
나의 이름, 일, 관심사, 공각지를 신청한 계기
페미니스트 공각지 프로젝트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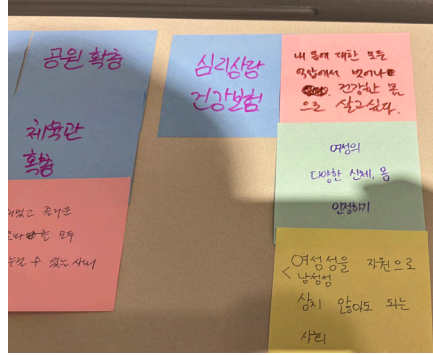
나의 페미·가치·정치 만다라트¹ 소개
내 삶의 가장 심각한 혹은 중요한 문제,
그 문제와 연결된 의견 - 경험 - 상상 나누기

콩 싹 틔우기
내 주변 사람들과도 함께 만다라트 해보기



¹ 만다라트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면
부록을 참조하길 권한다.


두번째 모임 : 가치들
2024.02.22 (목)



스몰토크
희망 한 스펀 - 요즘 나를 기쁘게 하는 것
주변인과 나눈 정치에 대한 대화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39 회 여성대회 부스
캠페인 기획
내가 추구하는 가치 카드 만들기

콩 싹 틔우기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맞아있는 정책 알아보기
패들렛에서 같이 가치 문장 추가하기

 두번째 모임 후기
읽으러 가기



다시, 페미니스트 정치의 도래



세번째 모임 : 문장들 2024.03.07(목)

스몰토크



세번째 모임 후기
읽으러 가기

정치 특강과 토크쇼 소감 나누기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39 회 여성대회 부스 캠페인 준비

우리들의 가치 카드 문장 다듬기

“ 나 이 어 린 사 람 들 은
미 숙 하 고 약 하 다 는
편 견 이 없었 으 면 좋 겠 어 ”

“ 돈 안 되는 것 들 이
지 지 받 았 으 면 좋 겠 어 ”

“ 내 권 리 를 주 장 할 때 자 격 을
증 명 하 라 고 요 구 하 지 마 ”

“ 모 두 들 자 신 의 시 공 간 을
누 릴 수 있 는 집 이
있 었 으 면 좋 겠 어 ”

“ 모 두 가 즐 겁 고 재 밋 게
놀 며 좋 아 하 는 것 을
찾 을 수 있 는 사 회 ”

“ 이 상 queer 해 보 이 는
사 이 가 있 는 그 대 로
받 아 들 여 졌 으 면 좋 겠 어 ”

“ 걱 정 없 이 거 리 를 다 니 고



이웃과 소통하며 살고 싶어”

“ 동물들이 행복하고 존엄하게
살 았 으 면 좋 겠 어 ”

“ 몸 에 대 한 모 든 억 압 에 서
벗 어 나 고 싶 다 ”

“ 정 복 하 고 식 민 하 는 세 계 가 아 닌
통 합 하 고 협 동 하 는
세 계 가 되 길 원 해 ”

“ 개 발 멈 칩 ,
원 전 멈 칩 ,
파 과 멈 칩 ”

“ 다 양 한 목 소 리 가
존 중 받 는 정 치 를 원 해 ”

“모두가 장벽없이 자유롭게 이동
하 고 관 계 맺 을 수
있 었 으 면 좋 겠 어 ”

네번째 모임 : 질문들
2024.03.14(목)

스몰토크

- 3.8 여성대회 참여 소감 나누기
- 내가 붙잡고 싶은 가치 카드 고르기

정치와 나 사이의 거리 n 미터 ?

왜 우리가 원하는 정책은 입안되거나 실현되지 않을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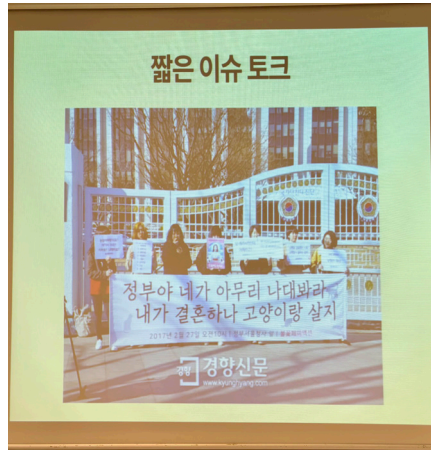
콩 싹 틔우기

- 내가 붙잡고 싶은 가치에 관한 에세이 써오기



네번째 모임 후기
읽으러 가기

다섯번째 모임 : 경험들
2024.03.21(목)



이슈토크

- '인기공약' 저출생 의제를 비롯한 젠더정책, 우리는 어떻게 볼까 ?

'내가 붙잡고 싶은 가치 카드' 에세이 합평

콩 싹 틔우기

- 서로의 글에서 좋았던 문장 밑줄 긋기
- 나의 에세이를 더 풍성하게 만들기



다섯번째 모임
후기 읽으러 가기

여섯번째 모임 : 후보들
2024.03.28(목)

이슈토크

- 총선 관련 기사를 보며 화풀이, 분풀이, 살풀이

'내가 붙잡고 싶은 가치 카드' 에세이 2 차 합평

공보물 쏘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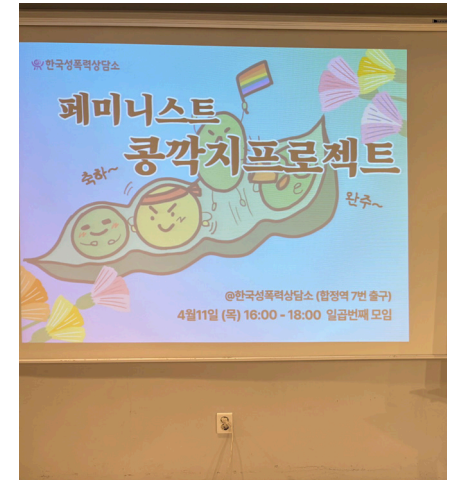
콩 싹 틔우기

- 우편 공보물 받아본 후 소감 나누기



여섯번째 모임
후기 읽으러 가기

일곱번째 모임 : 결과들
2024.04.11(목)



총선 결과 속풀이 토크

- 총선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 내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한 마디

비건 피자 먹으면서 작별 인사 하기



일곱번째 모임
후기 읽으러 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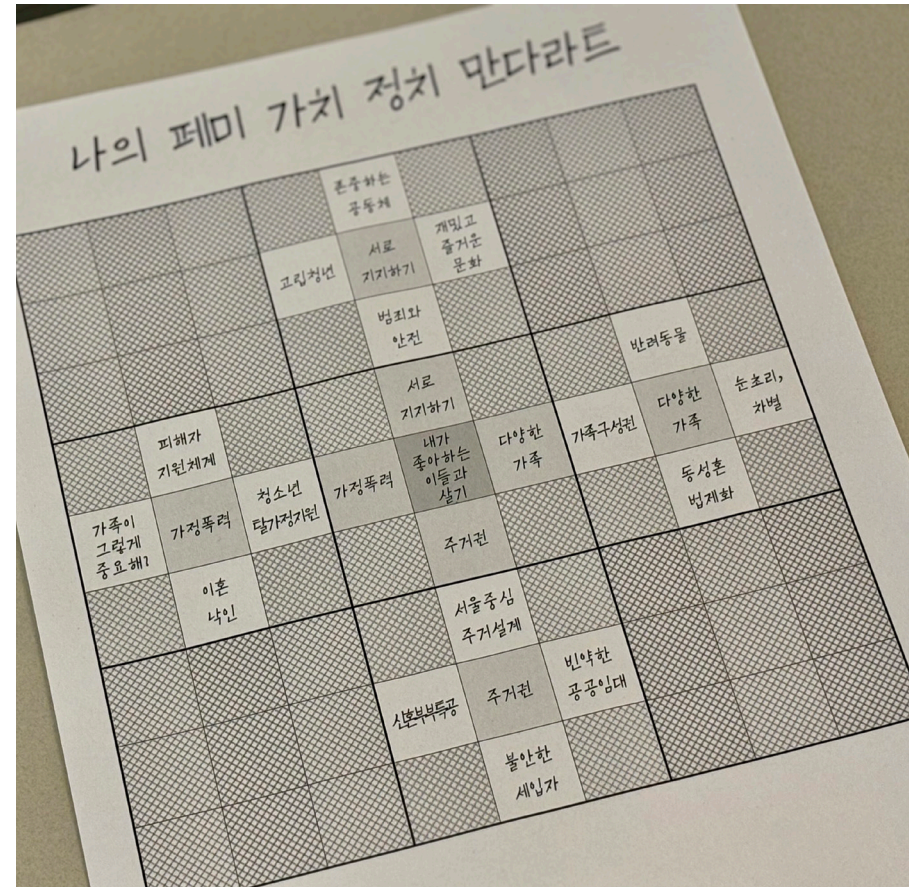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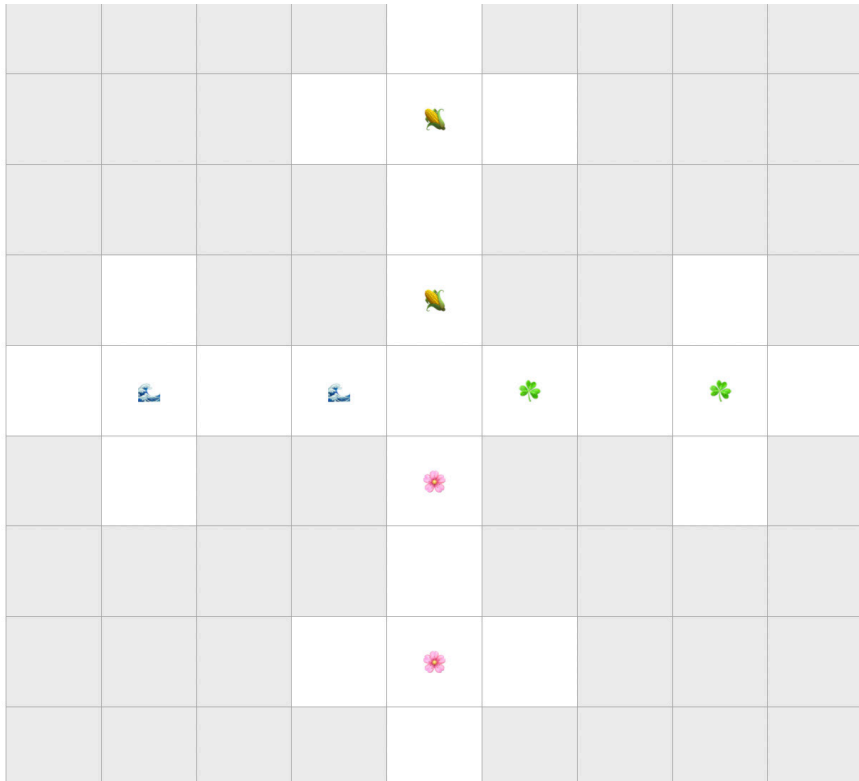
부록

부록 : 서로에게 질문하기

- ㄱ . 내 삶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주변 친구들과 얘기 나누었을 때 어땠나요 ?
- ㄴ . 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난다면 , 어떤 말을 걸고 싶은가요 ?
내가 거리에서 나를 만났다면 , 어떤 말 건넬 받고 싶나요 ?
- ㄷ . 내가 지지하거나 속한 정당이 있나요 ? 내가 지지하거나 실망한 정치인이 있나요 ?
- ㄹ . 가장 최근 본 분노스러웠던 기사는 무엇인가요 ? 기뻐던 기사는 무엇인가요 ?
- ㅁ . 22 대 국회에서 꼭 다뤄졌으면 하는 의제가 무엇인가요 ?
- ㅂ . 요즘 내가 푹 빠진 것은 무엇인가요 ?

부록 : 페미·가치·정치 만다라트

이것은 페미니스트인 나의 가치와 정치적 지향을 구체화하는 도구입니다.
 가운데칸에 내 삶에서 가장 심각하거나, 중요한 문제를 씁니다.
 가운데칸 동서남북에 위치한 칸에 그 문제와 연결된 생각을 씁니다. 이모티콘을 참고하면
 이해가 쉬울거예요. 생각뿐 아니라 관련한 이슈, 나의 경험, 상상, 의견 모두 쓸 수 있습니다.
 동서남북 자리에 쓴 생각을 같은 이모티콘이 그려져 있는 칸에 옮겨 씁니다.
 그 생각과 연결된 생각을 또 써 봅니다.





정치의 시기에 페미니스트들이 작당모의 하는 법
페미니스트 콩깍지 프로젝트 기록

발행일 2024년 6월 28일

발행처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발행인 김혜정

편집 류수민

전화 02-338-2890

홈페이지 sisters.or.kr

이메일 ksvrc@sisters.or.kr

표지에 사용한 일러스트는 김도이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